

모두 발언

서민 공동대표(대안연대/ 단국대학교 의과대학)

안녕하십니까? 대안연대 서민 공동대표 입니다.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성남시민들에 맞는 복지가 무엇이며, 어떻게 이를 수행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자 함입니다. 모두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, 제가 의대 출신이다 보니 복지에 대해 아는 게 거라곤 의료밖에 없으니,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.

흔히 보수는 성장을, 진보는 복지를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, 요즘은 보수에서도 진보의 이념을 받아들여 폭넓은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 5세 미만 자녀들을 지원하는 무상보육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진보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. 문재인 케어의 폐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. 의료의 과잉이용을 부추김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 시킨 만큼, 이 정책의 폐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. 의료 부문에서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공공병원입니다. 원래 공공병원은 못 가진 분들에게 의료공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. 미국의 경우를 봐도 공공병원은 싼 의료비로 없는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우리나라도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 70개의 공공병원을 더 짓겠다고 말한 바 있지요.

하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의해 의료가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. 삼성병원이나 동네 병원, 그리고 공공병원을 간다 해도 의료비가 똑같습니다. 가격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은데다, 의료 수준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, 사람들은 웬만하면 큰 병원을 찾습니다. 그 결과 공공병원은 경쟁력을 잃고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. 어렵사리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만 해도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들에 밀려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. 그렇다고 성남시의료원이 없어져야 할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이론적인 가격은 똑같다 해도, 공공병원의 진료비가 민간병원에 비해 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거든요. 과잉진료를 덜 하고, 입원비 등은 민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특히 인구 100만에 빈부격차가 제법 심한 성남에서 공공병원은 나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 문제는 이런 장점만으로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당기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.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워낙 싸다보니, 진료비가 약간 싸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다보니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. 연봉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, 처음 문 열 때 있

던 의사 중 10%가 넘는 의사가 이미 그만뒀다, 등등의 얘기들이요. 취소하긴 했지만,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한 것도 성남시의료원을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.

오늘 발표하실 분들께서는 복지분야의 학계, 시설현장에서 다 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준우 교수님, 정효신 센터장님, 박영애 前성남시의원님, 조기홍 회계사님, 석춘지 前관장님, 남천우 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리고 허 은 성남시 복지국 국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정책제안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.

오늘 토론에서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, 성남시의료원의 미래에 대해서도 토론이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무리하게 민간과 경쟁하다 적자만 늘어나는 것보다는, 성남시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곳으로 탈바꿈하면 좋지 않겠습니까? 끝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공동주최자로 사)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.